

韓國大學博物館의 回顧와 展望

秦 弘 燮*

目 次

1. 大學博物館의 設置
2. 大學博物館의 活動
3. 大學博物館協會의 結成
4. 大學博物館協會의 活動
5. 大學博物館의 向方
6. 大學博物館協會의 向方

1. 대학박물관의 설치

극히 상식적인 피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각 대학의 부설박물관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대학박물관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학설치기준령이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 민족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호와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수호와 그것을 대학교육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다. 즉 高麗大學校의 전신인 普成專門學校에서 安威平女史의 회사금을 기본으로 주로 민속자료를 비롯한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니 1934년의 일이다.

普成專門學校에서의 박물관 설치에는 孫晋泰교수 등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해인 1935년에는 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의 협력으로 민속품·목공품·도자기 등을 수집하여 藝林院(原音樂館, 現大學院) 3층에 진열함으로써 부속박물관을 개설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일에 많은 영향을 준 분은 당시 開城府立博物館長으로 있던 高裕燮교수였다고 한다. 얼마후인 1940년에는 京城帝國大學에도 박물관이 설치되었는데 이 박물관의 기초가 되었던 소장품은 한국사람 朴榮喆이 수집 보관하였던 古書畫 백여점을 그의 유언에 따라 기증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동시에 그 보존을 위하여 회사한 기금과 몇몇 개인의 기부금을 기초로 1941년 9월 현재의 박물관 건물을 준공하고 京城帝國大學陳列館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박물관은 해방전에는 秋葉隆교수가 한국·만주·몽고지방을 비롯하여 大興安嶺 北部의 오로촌族을 답사 수집한 민속품, 岡正雄의 알선으로 코펜하겐博物館과의 유물교환으로 입수한 덴마크 민속품, 泉請一이 수집한 뉴기니아 민속품, 島川喜一이 기증한 만주 東京城 渤海城址 발굴품 등 민속

* 梨花女大博物館長

품이 주가 되었다. 이상 일정시대에 설치된 대학박물관들은 지금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소장품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으나 서서히 충실을 기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말하자면 대학박물관의 초창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전국각지에서는 우후죽순같이 대학이 설립되었다. 普成專門學校, 延禧專門學校, 梨花女子專門學校 등이 대학으로 승격하였음은 물론 京城帝國大學은 서울大學校로 개편되고 새로운 대학들이 놀라운 속도로 불어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高麗大學校·梨花女子大學校·서울大學校들은 이미 설치된 부속박물관의 충실을 기하여 더욱 힘을 기우리게 되었으나 불과 5년 후에 일어난 6·25동란은 대학박물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다. 해방 이후 동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에 故金良善선생이 설립한 韓國基督教博物館과 梅山考古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박물관의 소장품은 金良善 개인의 수집품이지만 1967년 그의 모교인 崇實大學校에 기증함으로써 同大學校博物館이 대학박물관으로 발돋움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각 대학에 박물관을 설치하는 작업은 6·25의 상처가 가신 1950년대 후반부터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6·25를 겪는 동안 기존의 대학박물관들은 소장품을 거의 잃었고 梨花女大는 부산에서 소장품 수집과 임시전시실을 마련한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각대학들이 동란중은 물론 환도후에까지 소장품을 수집하여 박물관을 설치할 만한 물심양면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차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유적에 대한 조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조사에 많은 대학박물관이 참여하였고 한편으로는 도굴에 의한 문화재가 쏟아져나와 수장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립대학의 총장, 이사장 등 경영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니 그 이면에는 이들 유물을 대학에서 수장하여 교육에 이용하는 한편 대학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한편으로는 문화재의 산일·파손·해외유출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서울에서는 建國大學校·慶熙大學校·檀國大學校·東國大學校·成均館大學校·誠信女子師範大學(現誠信女子大學校)·首都女子師範大學(現世宗大學校)·淑明女子大學校·崇實大學(現崇田大學校)·延世大學校·漢陽大學校·弘益大學校등 지방에서는 慶北大學校·公州教育大學·東亞大學校·釜山大學校·全南大學校·全北大學校·忠南大學校 등에 박물관이 설치되었으니 이들 각 대학박물관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참고실에서 출발하였으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1967년 6월 17일에 문교부에서 教育基準令이 공포되어 종합대학교는 200m²이상의 박물관 전시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1970년 1월 27일에는 大統領令인 大學設置基準令이 개정되어 대학박물관의 설치에 관하여 「학생 1,000명 미만까지는 450m²이상, 2,000명 이상은 600m²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진열실의 크기를 규정하였다. 어찌보면 강제규정 같이 보이는 이 규정은 그대로 지켜 지지도 않았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지도 않은채 지금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소장품이나 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혀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었다. 지금의 대학박물관에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교부의 감독보다도 오히려 문화공보부와의 유대가 깊으며 사실상 그의 감독을 받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문교부의 이러한 규정이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설치되어 왔고 대학설치기준령 이후에 설치된 대학박물관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기보다는 대학 자체의 판단하에 설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에는 전국의 대학이 거의 모두 박물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1969년에는 梨花女大에는 自然史博物館이, 1978년에는 慶熙大學校에 自然博物館의 설치와 1981년에는 檀國大學校에 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이 신축 개관된 일들이다 대학에 설치된 모든 박물관이 역사·고고·미술에 관한 박물관이고 자연과학에 대하여는 전혀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이 방면의 독립된 박물관이 설치되었고 민속에 관한 독립된 건물을 가지게 되었음을 대학박물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매우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대학박물관의 활동

대학박물관의 사명은 말할것도 없이 문화재를 수집·보관하고 전시하여 학생들의 관람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대체로 교내의 활동과 교외의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내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전시·관람이겠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서 소장품의 연구자료로서의 이용 또는 학생들의 인식을 촉진하는 행사 등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대학박물관의 대내활동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소장품의 안전관리는 전시에 못지 않게 중요한 데도 진열실에 비하여 창고의 면적이 현저하게 좁으며 더우기 온·습도의 조절, 충해의 방제 등에 관한 시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전시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나 부담이나 제한없이 출입하며 관람할 수 있는 대학은 수 개대학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개방시간의 제한 또는 신청이 있어야 개방하는 실정이다. 각 대학이 부속박물관에 쏟는 예산에 비하면 학생들의 관람수는 매우 빈약하다는 결과로 나타나서 대체로 관람하는 학생수는 많아야 제적학생의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때로는 년 1, 2회의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하고 특별강연회를 가지기도 하나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다.

1970년대에 들면서부터 각 대학박물관에서는 소장품도록 또는 특별전도록 등의 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대학에서의 관심과 이용에도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아직까지의 도록발간 상황을 보면 梨花女大(1968년 이래 년 1회의 특별전도록 11집 발행)·首都女師大(1973)·서울大學校(1976년부터 특별전도록 축차발간)·東亞大學校(1977)·忠北大學校(1977)·西江大學校(1979)·崇田大學校(1977)·弘益大學校(1980)·嶺南大學校(1982)·全南大學校(1982)·延世大學校(1982년이래 특별전도록 축차발간)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점은 1978년 12월 檀國大學校의 「石宙善記念民俗博物館所藏目錄」 1979년 12월

「서울大學校博物館所藏品目錄」·1981년 6월의 「淑明女子大學校博物館所藏品目錄」등의 발간이니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조유의 일이며 淑明女大의 경우 그 간행사에서 「보다 次元높은 韓國의 傳統美와 生活樣式을 究明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資料를 提供코져」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학박물관의 소장품이 그 대학만의 사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 공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한 결과임은 서울대학교박물관이나 石宙善記念館의 경우도 동일할 것이니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내적인 활동에 비하면 대외적인 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많은 활약과 성과가 있었다.

지표조사는 다시 대학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와 정부 또는 지방행정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를 대학에 위촉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대학 대학자체에서의 조사로는 1960년 漢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時代遺蹟에 대한 地表조사를 비롯한 15회에 걸친 조사, 1963년 이래 실시해 온 梨花女大博物館의 安東地區 조사, 1966년 이래 지역별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檀國大學校博物館의 지표조사, 1980년에 실시한 嶺南大學校博物館의 安東문화권지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관서의 위촉으로 조사한 예로는,

1976 全北大, 全州·完州地域文化財 調査

1977 釜山大, 釜山市文化財地表調査

1977 忠北大, 大淸潭水沒地區遺跡調査

1977 淸州大, 忠州淸水沒地區遺跡遺物調査

1978 濟州大, 濟州朝天面石器時代散布地調査

1979 慶北大, 慶尙北道文化財地表調査

1980 忠北大, 午岩山地域文化遺跡地表調査

1980 忠北大, 忠州淸水沒地域文化財地表調査

등이 각각 실시되었고 이들 조사결과는 거의 모두 인쇄물로 출판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미지의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되어 새로운 자광을 받게 되기도 하였으니 가장 주목되는 예가 단양 赤城碑·중원 高句麗碑 등이며 한편 지표의 유적이나 유물을 확인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증표로 삼기도 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檀國大學校博物館의 삼국시대에 삼국이 각축을 벌리던 역사적 유적의 추적이라고 하겠다. 발굴조사도 매우 활발하였으나 대학박물관의 주관 아래 발굴을 시도한 최초의 예는 1959년에 시작한 高麗大學校博物館의 경남 熊川貝塚의 발굴이었다. 이 발굴은 1964년 계속 金廷鶴館長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더욱 뜻있는 점은 일정시대의 발굴조사가 고분에 치중되어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극히 소홀하였고 이러한 풍조는 해방후에도 여운이 남았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국립박물관의 支石墓조사가 이루어지던 때 이보다 앞서 대학박물관에서 선사유적을 발굴하였다는데 있다.

이어 1960년에는 慶北大學校博物館에서 경북 漆谷郡 若木소재 고분을 발굴하였고 1963년에는 梨花女大博物館에서 경북 安東郡 一直面 소재 고분을 발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梨花女大의 발굴은

여자가 고분을 발굴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어 「女孤」라는 편찬을 받기도 하였다. 196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大學校에 考古人類學科가 설치되어 金元龍교수가 학과장과 박물관장을 겸하면서 서로 깊은 유대 아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후 전국의 각 大學博物館이 활발히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대표적 발굴을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 慶熙大 1969 慶州古墳
- 檀國大 1967 泗川貝塚
- 東國大 1974 保寧聖住寺址
- 釜山大 1972 釜山 金谷洞 岩陰유적
- 東亞大 1970 東來福泉洞古墳
- 圓光大 1974 益山彌勒寺東塔址
- 公州師大 1974 公州利仁面九岩里古墳
- 全北大 1979 南原萬福寺址
- 延世大 1964 公州石壯里舊石器遺跡
- 崇田大 1972 楊平面新石器時代遺跡
- 忠南大 1980 扶餘定林寺址
- 忠北大 1978 提川점말洞窟
- 嶺南大 1973 慶州鷄林路古墳
- 啓明大 1978 高靈池山洞古墳
- 全南大 1975 潭陽榮山江潭水沒地域遺跡
- 淸州大 1977 中原彌勒里寺址
- 漢陽大 1982 提原郡眞木里支石墓

등이다.

이상과 같은 발굴은 초기에는 각 大學博物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나 1970년에 들어가면서 문화재관리국과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되었고 근래에는 八堂땀 大清땀, 忠州땀 등을 비롯한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공사에는 발굴비용을 공사비 속에 책정하여 사전조사를 하도록 규정화되어 발굴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사전조사에 大學博物館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발굴결과에 정리에 있어서도 보고서의 발간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3. 大學博物館協會의 結成

1961년 5월 5일 몇몇 大學博物館 관계자들이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에 모여 「韓國博物館協會」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大學博物館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인 동시에 박물관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진이었다. 약간 지루한 감은 있으나 후일의 참고를 위하여 당시에 발표된 취지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創立趣旨書

教育에 있어서 實物에 依한 直觀教育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從來의 우리나라 教育이 抽象的 觀念的 教育方法에 치우쳤던 弊害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歐美諸國에 있어서 博物館事業이 重要視되고 發達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家財政의 窮乏과 直觀教育에 對한 認識의 不足으로 一般 博物館의 運營이 不振한 現實情에 鑑하여 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의 重要性은 倍加되고 있습니다.

이에 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 關係者들의 오랫동안의 興望에 따라 大學博物館事業의 協助와 促進을 위하여 지난 5월 5일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創立되었습니다.

本協會는 會則에 規定된 바와 같은 여러 方面의 事業을 하겠거니와 特히 各大學의 博物館 또는 參考品室의 運營에 關한 學術的, 技術的, 協助를 圖謀하고 또한 現在 博物館이나 參考品室이 없는 大學에는 이러한 施設이 하루 速히 이루어지도록 協力할 것입니다.

大學博物館은 主로 歷史, 美術, 民俗, 考古學, 自然科學 등에 關한 資料를 蒐集, 保存 및 研究하고, 이것을 學生들의 教育에 利用되도록 할 것인바, 그 중에서도 우리의 過去 文化財의 蒐集, 保存 및 研究는 우리나라 大學博物館의 最大의 使命인줄 믿습니다. 더욱이 各 地方의 大學博物館은 그 地域의 文化財에 對한 保護, 研究 및 普及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實로 우리 大學博物館의 任務는 重且大한 것이 있음을 다시금 認識하는 바입니다.

檀紀 4294年 月 日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建國大學校

慶北大學校

慶熙大學校

高麗大學校

檀國大學校

東亞大學校

釜山大學校

서울大學校

成均館大學校

淑明女子大學校

崇實大學

延世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
 全南大學校
 中央大學校
 忠南大學校
 漢陽大學校
 弘益大學校

이와같이 설립된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초대 회장교에는 梨花女子大學校가 副會長校에는 高麗大學校와 慶北大學校가 선임되었고 주로 沈亨求 梨花女大館長과 金延鶴 高麗大館長이 協會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協會가 창설될 때의 가입교는 취지문에 연명한 18개교였으나(취지문에 연명한 대학이 모두 박물관을 설치한 대학은 아니며 協會설립취지에 찬동한 대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63년 6월에 발행된 古文化 제 3집 後記에 다음과 같이 있다. 「또 새로 博物館을 施設하게 된 大學이 여럿있게 되었습니다. 首都女子師範大學·釜山大學·建國大學·成均館大學·淑明女子大學등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도 博物館을 設置하려고 計劃하고 있는 大學이 여럿 있습니다. 慶熙大學校·漢陽大學校·中央大學校·檀國大學 등이 그것입니다.」) 해마다 協會에 가입하는 대학박물관이 증가되어 1982년 春季總會에서 새로이 가입이 승인된 대학을 합하여 회원교는 52개교로 증가되었다. 실로 장족의 발전이었다. 참고로 예산규모를 보면 창립 당시에 연명한 18개교 중 회비를 납부한 액수는 10개교 8만원이었으나 1982년도 春季總會에 보고된 회계보고에 의하면 총규모 18,985,323원이고 이 중에 특별기금 12,37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연륜을 쌓아가는 동안에 協會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역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순 위 | 기 간 | 회 장 교 | 부회장교 | 감 사 교 | 간 사 교 |
|-----|--|--|------------|-------|---|
| 1 | 1061. 5. 5 62. 8. 6 1962. 8. 6 63. 5. 4 | 梨花女大 沈亨求 高麗大 金延鶴 (1962. 8. 6. 沈亨求館長逝去) | | | |
| 2 | 1963. 5. 4 65. 6. 5 | 高麗大 金延鶴 | 서울大 慶北大 | 梨花女大 | 서울大,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崇實大, 梨花女大 |
| 3 | 1965. 6. 5 67. 6. 14 | 高麗大 李弘植 | 慶北大 全南大 | 首都女師大 |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崇實大, 延世大, 梨花女大, 全南大 |
| 4 | 1067. 6. 14 69. 5. 20 | 梨花女大 秦弘燮 | 慶北大 全南大 | 首都女師大 | 建國大, 慶北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崇實大, 延世大, 全南大 |
| 5 | 1969. 5. 20 70. 11. 27 (1970. 11. 27 71. 5. 27) | 崇實大 金良善 梨花女大 秦弘燮 (1970. 10. 11 金良善館長逝去) | 嶺南大 全南大 | 慶北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
| 6 | 1971. 5. 27 73. 5. 7 | 梨花女大 秦弘燮 | 嶺南大 全南大 | 慶北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

| 순 위 | 기 간 | 회 장 교 | 부회장교 | 감 사 교 | 간 사 교 |
|-----|--------------------------|-------------------|-------------------|-------|--|
| 7 | 1973. 5. 7 75. 6. 2 | 建國大 金錫淳 | 圓光大 | 慶北大 | 慶北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淑明女大, 延世大, 圓光大, 梨花女大, 弘益大 |
| 8 | 1975. 6. 2 77. 5. 21 | 建國大 金錫淳 | 慶北大 檀國大 | 公州教大 |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國大, 서울대, 延世大, 梨花女大, 弘益大 |
| 9 | 1977. 5. 21 79. 5. 14 | 東國大 黃壽永 | 檀國大 嶺南大 | 公州教大 | 建國大, 慶熙大, 慶北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亞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
| 10 | 1979. 5. 14 81. 6. 13 | 東國大 黃壽永 安啓賢 | 檀國大 釜山大 全南大 | 公州教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東亞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
| 11 | 1981. 6. 13 현 재 | 弘益大 安輝濬 | 國民大 嶺南大 全北大 | 公州師大 | 建國大, 國民大, 檀國大, 公州師大, 崇田大, 延世大, 東國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北大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회장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맡아왔고 부회장교·감사교·간사교들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지방대학이 참가하도록 배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원교들은 협회활동에 기여한 바 크고 특히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임원교는 물론 회원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4. 大學博物館協會의 活動

大學博物館協會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매년 개최하는 연합전시회와 기관지 「古文化」의 발간이다.

가. 연합전시회

연합전시는 매년 1회 전국의 대학박물관을 순회하면서 각 대학박물관이 출품하는 소장품을 종합 전시하여 1982년으로서 19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합전시를 계기로 제 5회부터는 학술강연회가 열렸고 제 9회·제10회·제11회 연합전시 때에는 대학박물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였다. 연합전시회·학술강연회 및 실무자 세미나의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1) 연 합 전 시 회

| 수 회 | 기 간 | 장 소 | 참 가 교 및 출 품 점 수 |
|-----|---------------------|------|--|
| 1 | 1963. 4. 20 5. 4 | 梨花女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서울대, 崇實大, 梨花女大 7교 144점 |
| 2 | 1964. 5. 2 5. 16 | 高麗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서울대,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實大, 陸士, 梨花女大 11교 182점 |

| 수 회 | 기 간 | 장 소 | 참 가 교 및 출 품 점 수 |
|-----|----------------------|------|--|
| 3 | 1965. 5. 26 6. 5 | 慶北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實大, 延世大, 陸士, 全南大, 全北大, 梨花女大 12교 239점 |
| 4 | 1966. 5. 23 6. 11 | 梨花女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成均館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實大, 延世大, 陸士, 全南大, 全北大, 梨花女大 12교 387점 |
| 5 | 1967. 6. 5 6. 14 | 全南大 | 建國大, 高麗大, 東國大, 釜山大, 서울大, 崇實大, 陸士, 全南大, 全北大 9교 248점 |
| 6 | 1968. 5. 15 5. 18 | 建國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서울大, 崇實大, 陸士, 全南大, 全北大 9교 252점 |
| 7 | 1969. 5. 15 5. 20 | 釜山大 | 建國大, 慶北大, 高麗大, 東國大, 東亞大, 檀國大, 釜山大, 崇實大, 嶺南大, 圓光大, 全南大 11교 351점 |
| 8 | 1970. 5. 18 5. 28 | 崇實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實大, 延世大, 嶺南大, 圓光大, 陸士, 梨花女大, 全北大, 全南大, 忠南大, 弘益大, 21교 223점 |
| 9 | 1971. 5. 17 5. 24 | 慶熙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檀國大, 東國大, 釜山大, 서울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圓光大, 全南大, 弘益大 16교 157점 |
| 10 | 1972. 5. 24 5. 30 | 慶北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弘益大, 15교 215점 |
| 11 | 1973. 5. 1 5. 7 | 梨花女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成均館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弘益大 17교 297점 |
| 12 | 1974. 5. 20 5. 25 | 高麗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19교 330점 |
| 13 | 1975. 5. 26 6. 2 | 弘益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首都女師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弘益大, 19교 205점 |
| 14 | 1976. 6. 14 6. 19 | 公州教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忠南大, 弘益大 20교 299점 |
| 15 | 1977. 5. 16 5. 21 | 東亞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全南大, 全北大, 忠南大, 忠北大, 弘益大, 22교 295점 |
| 16 | 1978. 6. 12 6. 17 | 圓光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高麗大, 公州教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圓光大, 梨花女大, 全南大, 全北大, 忠南大, 忠北大, 曉星女大, 弘益大 24교 |
| 17 | 1979. 5. 14 5. 19 | 慶熙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啓明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同德女大, 東亞大, 서울大, 成均館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圓光大, 梨花女大, 全南大, 全北大, 忠南大, 忠北大, 弘益大 23교 |
| 18 | 1981. 6. 8 6. 13 | 全北大 | 建國大, 慶北大, 慶熙大, 啓明大, 高麗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서울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嶺南大, |

| 수 회 | 기 간 | 장 소 | 참 가 교 및 출 품 점 수 |
|-----|---------------------|-----|---|
| 19 | 1982. 5. 31 6. 5 | 嶺南大 | 圓光大, 梨花女大, 全南大, 忠北大, 弘益大, 曉星女大 21교 343점 建國大, 慶北大, 啓明大, 高麗大, 公州師大, 檀國大, 德成女大, 東國大, 東亞大, 釜山大, 서울大, 誠信女大, 淑明女大, 崇田大, 延世大, 圓光大, 梨花女大, 全南大, 全北大, 弘益大, 曉星女大 21교 264점 |

(2) 학 술 강 연 회

| 연 합 전 시 수 회 | 연 월 일 | 장 소 | 강 연 자 및 강 연 제 목 |
|-------------|--------------|------|---|
| 5 | 1967. 6. 13 | 全南大 | 李弘植: 百濟의 古代國家成立問題 秦弘燮: 皇龍寺址舍利孔의 調査 黃壽永: 新羅文武王陵의 調査 |
| 6 | 1968. 5. 18 | 建國大 | 金良善: 韓國磨製石劍의 形式分類에 대하여 鄭永鎬: 襄陽 陳田寺址에 대하여 一石造物을 中心으로 |
| 7 | 1969. 5. 20 | 釜山大 | 金良善: 韓國古玉 및 古유리에 關하여 金廷鶴: 伽耶史研究의 課題 |
| 8 | 1970. 5. 28 | 崇實大 | 孫寶基: 韓國舊石器文化에 關하여 孫寶基: 韓國初發見의 舊石器時代집자리 秦弘燮: 慶州仁旺里地下遺構의 調査 黃壽永: 斷石山 神仙寺의 調査 |
| 9 | 1971. 5. 24 | 慶熙大 | 鄭永鎬: 沃川地區古蹟調査略報 崔淳雨: 朝鮮時代土人畫家 |
| 10 | 1972. 5. 30 | 慶北大 | 全相運: 韓國科學과 技術 |
| 11 | 1973. 5. 7 | 梨花女大 | 金正基: 佛國寺의 復原의 考察 |
| 12 | 1974. 5. 25 | 高麗大 | 李龜烈: 大學博物館과 現代美術 黃龍渾: 빛살무늬文化의 打製石器製作技術과 그 類型分類 |
| 13 | 1975. 6. 2 | 弘益大 | 安輝濬: 韓國山水畫의 發達 李蘭暎: 博物館法制定에 關하여 |
| 14 | 1976. 6. 19 | 公州敎大 | 朴容填: 百濟蓮花紋瓦當의 形式分類 安承周: 百濟古墳의 編年 研究 |
| 15 | 1977. 5. 21 | 東亞大 | 金東鎬: 昌寧桂城古墳發掘報告 孫寶基: 집달洞窟發掘報告 |
| 16 | 1978. 6. 17 | 圓光大 | 鄭明鎬: 益山王宮里宮牆址發掘調査 秦弘燮: 異型石塔의 基壇形式 |
| 17 | 1979. 5. 19 | 慶熙大 | 李慶成: 韓國近代東洋畫에 대하여 鄭永鎬: 中原地區三國期遺跡의 調査 |
| (연 합 전 중 지) | 1980. 11. 22 | 東國大 | 趙由典: 感恩寺址發掘報告 黃壽永: 金銅佛像의 新例 |
| 18 | 1981. 6. 13 | 全北大 | 尹德香: 彌勒寺址發掘中間報告 鄭求福: 萬福寺址發掘調査略報 |
| 19 | 1982. 6. 5 | 嶺南大 | 尹容鎭: 伽耶土器의 概念 鄭永和: 安東文化圈地表調査報告 |

(3) 실무자 세미나

| 연합전시회 | 기 간 | 장 소 | 발 표 자 및 제 목 |
|-------|-------------|------|-------------------------------|
| 9 | 1971. 5. 24 | 慶熙大 | 李蘭暎：博物館學의 2,3問題 張仁基：文化財法解說 |
| 10 | 1972. 5. 30 | 慶北大 | 李泰寧：文化財의 科學的保存에 관하여 |
| 11 | 1973. 5. 7 | 梨花女大 | 金裕善：木造工藝品保存에 관한 問題 |

나. 古文化發刊

협회가 창립된지 1년 후인 1962년 5월 10일 기관지인 「古文化」가 창간되었다. 이 창간호는 高麗大學校博物館長이었던 金廷鶴교수의 노력이 컸음을 명기하여야 하겠다. 창간사에는 「古文化」는 歷史·考古學·美術·民俗의 諸分野에 걸쳐 우리나라 古文化 研究를 促進하는 소임을 다할 것을 期하는바이다」라고 선언하여 1982까지 연간으로 20輯을 발간하였다. 그동안 실린 論文 45편, 자료 24편에 달하였고 5·6합집부터는 그 해에 연합전시회를 주관하는 대학박물관을 권말에 소개하기 시작하여 高麗大·梨花女大·서울大·慶北大·建國大·全南大·首都女師大·弘益大·公州教大·東亞大·圓光大·慶熙大·全北大·嶺南大 등의 박물관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다. 美術史學界에 대한 反應表明

美術史學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반응을 표명한 일은 세번 있었다.

(1) 德壽宮美術館 併合問題

1964년에 있었던 德壽宮美術館을 국립박물관에 병합하려는 논의에 대해서였다. 이 문제는 당시 문교부에서 추진중에 있었고 1968년 7월 24일 각의결정에 따라 드디어 실현되었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 1964년 8월 21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金庠基위원의 장관면회 내용, 金載元위원의 경위 등의 설명이 있었고, 李相伯위원의 오히려 적극적인 확충이 바람직하다는 등 양 기관 병존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대학박물관협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건의서를 내게 되었다.

1964년 8월 26일 긴급간사회를 열 것과 「韓國博物館事業의 발전 및 民族文化宣揚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念慮하여 韓國大學博物館協會로서도 어떠한 建議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어」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건의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1. 國立博物館과 德壽宮美術館은 統合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2. 國立博物館은 景福宮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德壽宮美術館으로서의 機能이 發揮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德壽宮美術館 병합에 대한 당시의 반응은 매우 커서 전술한 문화재위원회는 물론 한국미술사학회에서는 반대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慶州 石塔舍利莊嚴具 盜取事件

1967년 9월 6일 불국사 3층석탑과 경주나원리 5층 석탑 등 국보석탑이 피한들에 의하여 사리장엄

구 도취미수사건이 발생하여 한때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두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무사하였고 특히 불국사 3층 석탑에 대하여는 사리장엄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장치당씨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유리제 사리병은 사찰측의 과실로 파괴되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학박물관협회는 동년 9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聲 明 書

韓國의 國寶인 佛國寺三層石塔과 慶州 羅原里五層石塔이 破壞되었다는 報道에 接하여 本協會는 驚愕를 禁치 못하였다. 地雲·風化等 世論이 있으나 舍利 盜取를 目的한 行然임은 調査를 기다리지 않고도 능히 추측되는 바 이러한 行然는 專門研究의 基礎를 顛覆하고 民族文化의 證左를 扶殺하는 永久히 씻어지지 않는 犯罪行然라고 斷定한다.

全國 各處에서 盛行되는 盜掘이 우리 文化 闡明에 致明의인 支障을 招來하여 왔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行爲가 하루 속히 根絶되기를 希求하여 왔더니 그 魔手는 드디어 慶州같은 內外國人이 注目하는 地域에 까지 미치지 어찌 文化財의 永久遺存이 保證되겠는가

本協會는 好比한 盜掘行爲가 民族文化에 關한 根本問題임에 鑑하여 徹底한 責任의 糾明과 그 根絶策이 時急히 樹立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 博物館法制定

박물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일이다. 박물관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지만 1978년 6월 26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여 박물관법제적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법조문에 박물관심의위원회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었다.

라, 對外活動

(1) 外國博物館視察

1975년 당시의 회장교인 建國大學校博物館의 주선으로 臺北 中國國立歷史博物館의 초청에 의하여 1975년 12월 18일부터 1976년 1월 7일에 걸쳐 臺灣의 博物館을 시찰하였고 歸路에 일본의 박물관도 시찰하였다.

이 시찰에는 金錫淳(建國大)·黃壽永(東國大)·許善道(國民大)·朴容煥(公州教大)·金榮敦(濟州大)·申採湜(公州師大)·尹世映(高麗大)·金和英(梨花女大)·李潭周(建國大)·李信子(同德女大) 등 여려분이 참가하였다.

(2) Aspac 심포지움 參加

1976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Aspac 과 臺灣國立歷史博物館과의 공동주최로 臺北에서 열린 亞細亞太平洋地區 博物館심포지움에 金宅奎(嶺南大)·李康七(陸士)·李潭周(建國大)의 세분이 참가하였다(古文化 15輯 李康七씨 보고문 참조).

(3) ICOM 加入問題

1975년 10월 8일 간사회에서 ICOM 가입문제를 토의하였으나 협회로서의 가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마. 大學博物館 機能發揮에 관한 論議

1971년 5월 2일 제11회 총회에서는 대학박물관에서 구입하였을 경우 장물로서 압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회원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협회에 통보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 (1) 발굴조사 신청이 불허된 경우
- (2) 유물을 구입하였다가 문제된 경우
- (3) 시급히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총회의 위임을 받은 간사교는 1971년 7월 5일 회합을 갖고 소위원교로 檀國大學校博物館·延世大學校博物館·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을 선정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다만 1970년대 이후 파괴 고분의 사후정리·문화재관리국의 지도를 받거나 공동발굴일 경우, 문화재관리국 주관하의 발굴조사 위촉 등에 국한되어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는 위축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기부터 차츰 시정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大學博物館의 方向

1979년 5월 10일 孫寶基교수는 「古文化」 17집에 「한국대학박물관과 박물관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개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
2.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
3. 대학박물관협회가 할 수 있는 일

1항에서는 집필당시까지의 대학박물관의 설립과정과 박물관협회의 활동상황을 서술하였고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표제를 달아 대학박물관이나 박물관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였으나 의도하는 바는 「해야 할 일」로 해석되어 많은 참고가 된다. 그 내용이 그대로 각 대학박물관에서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박물관이 되겠지만 각 대학박물관은 경영자 즉 총장이나 이사장의 대학경영 방침이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의 경중에 따라 좌우되고 심지어 기호에 따라서도 좌우되는 일이 있다. 따라서 孫교수가 지적한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내용은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지적하겠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표는 될지언정 그대로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당국의 방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필자는 대학박물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몇가지 지적하여 보고자 하나 이는 대학박물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경영자들도 참고해야 할 점이다.

1. 소장유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발굴조사의 출토품이건

구입한 것이건 모두 대학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들이 민족문화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대학만의 점유물은 아니다. 예컨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동안에 변질·훼손·인멸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지 다시 대치할 수 있는 비품이나 소모품의 훼손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민족유산은 같은 질, 같은 종류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는 자체의 생명이 있는 것임으로 변질·훼손·인멸은 그가 가지는 생명의 영원한 소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2. 소장품은 언제나 진열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수장품은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의 예산이 투입된 것임으로 박물관으로서는 공개하여 자료로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없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창고 속에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종합대학인 경우 학생수는 1만 5천명 내외가 되는데도 연간 박물관을 찾는 학생수는 3,4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일이며 박물관을 통한 교육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박물관 운영을 맡은 측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될 것이니 학생들을 될수 있는대로 많이 박물관에 오도록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3. 대학박물관의 소장품의 내용은 교육목적에 부응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혹 일급유물 수장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학교의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동기가 되었다면 대학박물관의 존재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사실 대학을 찾는 학교의 손님들, 특히 외국 손님들에게 박물관을 보인다는 일은 그 자체를 흠잡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주가 되어 그러한 목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목적에 부응되도록 진열품을 모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소장품은 많은 전공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학에서 서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고루 만족할만치 다양해야 되겠고 학교 경영자의 개인 기호가 작용하여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 다던지 지나치게 우수한 것만을 수장하려는 일은 배제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상품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마땅히 대학박물관으로서는 확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慶熙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에 설치한 自然科學博物館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대학박물관에서의 대외활동을 최대한 교육적으로 활용하여야 되겠다. 대학박물관의 대외활동은 자료조사 혹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주가 되겠으나 이 경우 각 대학들이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니 증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대학 상호간 또는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 대학박물관 상호간의 자료의 이용, 타대

학 학생들의 연구를 위한 박물관 자료의 이용, 외부관람자에 대한 개방 또는 자료의 이용등이 허용되어야 하겠다. 대학박물관에 귀중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박물관의 자랑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박물관이 독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마땅히 우리의 문화창달에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대학박물관이 아무리 유능한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역량에는 자연 한계가 있는만큼 널리 이용되어 중지를 모으는 일은 그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뿐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 大學博物館協會의 方向

대학박물관협회는 가입회원교 52교가 되어 전국의 대학수 97개교에 비하여 53.6%가 해당하는 비율이며 과반수가 회원교인 셈이다.

회원교의 수가 전국 대학수의 과반수를 넘게 된 것은 1982년 춘계총회에서 이루어졌으니 실로 중대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협회가 하는 일은 연 1회씩의 연합전시와 「古文化」 발간뿐이고 1982년에야 비로소 연 2회의 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협회로서는 과반수 돌파를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고고학 또는 미술사학을 전공한 학도들이 다수 배출되어 그러한 사람들이 대학박물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예가 많아지고 아직은 소수이지만 자연계열의 새로운 박물관이 설치되었음을 생각할 때 대학박물관협회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의 담보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각 대학박물관의 센터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의 사전을 개진하여 보고자 한다.

1. 「古文化」의 충실화와 協會報의 신간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발간된 20집까지의 古文化의 내용을 통관하면 내용이나 편집이 반드시 만족하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古文化」에는 좀더 우수한 論文을 실을 것이며 자료의 소개 내지는 고고학 미술사학계의 동태와 업적등을 실어서 내용의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 1회의 발간은 일종의 연보같은 성격이 있으므로 편집방향은 이에 준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대학박물관협회의 기관지라는 목적에도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연 1회의 기관지 발간은 회원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그다지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량의 다과에 관계없이 월간이나 계간의 「協會報」를 발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간단한 자료의 소개, 각 대학박물관의 행사 또는 신수품 소개, 소장품의 정리현황 또는 보존처리의 실적 등을 담은 간단한 회보를 발간하는 일은 본 협회의 취지문에도 있듯이 「運營에 關한 學術的·技術的 協調를 圖謀」하는 일이 될 것이며 협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연합전시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시의 효과적 운영이 필요하다'

자기 학교 소장품을 교외로 이동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고 원거리일 때는 더우기 그러하다. 그러나 연 1회의 행사이고 자기 대학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기회이기도 함으로 이에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며 전시교에서는 그 목적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하여 응분의 예우와 효과적 전시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전시교의 특별한 기획이나 지방적인 특색을 살리는 기획전시도 기도해 볼만하다. 그럴 경우 주제는 매우 다양할 것이며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치면 유익한 연합전시가 될 것이다.

3. 자연계박물관의 협회 가입을 추진할만하다. 현재는 2개교 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자연계박물관이 엄연히 대학의 부설박물관인 만치 마땅히 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협회 사무체계에 변화가 올 것이 당연히 예상되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이상의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 데는 당연히 예산 문제가 따르게 된다. 1982년도 춘계 총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에 의하면 6백 6십만원의 잉여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만한 흑자는 앞에서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의 회원교 연회비는 10만원으로 이는 한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의 대략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좀더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대신 전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회장교의 업무추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회원교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5. ICOM(국제박물관협회 또는 ICOMOS(국제기념물 및 유적위원회)에 가입함이 바람직하다. 1975년 10월 8일의 간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된 일이 있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교류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하에서 외국과의 유대를 가지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며 대학박물관협회의 가입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박물관협회는 대학박물관의 중심기구이며 상호협력의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결국 대학박물관협회는 이제까지의 성장기를 거쳐 성년이 되었고 전국 대학의 과반수를 포용하는 큰 단체로 성장한 만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여 전환을 이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각 대학박물관에 관한 서술 가운데서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것이 예상되니 이 점에 대하여는 관용이 있기 바라며 시정할 기회를 주기 바라 마지 않는다(1982. 10. 1).